

전례와 시간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박순웅(목사, 강원 홍천 동면교회)

1. 들어가는 말

지금 농촌은 쉼을 얻는 시기이다. 이제 곧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펼 생명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오늘도 이른 아침 성무일도의 찬미와 시편응송, 그리고 말씀을 읽고 관상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새 아침을 시작한다. 겨울 동안에는 오후 3시 정도부터 산보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 산 위에서 온 마을을 내려다보면 텅 비어있는 논과 들녘을 대하게 된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순환의 절기와 시간이 있기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땅과 사람은 시간의 삶 속에서 절기를 경험하고 그 때를 통해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24절기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연과 시간을 공유해 왔다. 그때마다 정성과 예를 행하여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응하면서 생산의 삶을 살아왔다. 겨울이 쉼의 계절이라면 봄부터 늦가을까지는 땀흘림의 시간이다. 전례인

교회력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쉼을 얻기도 하고 생산도 하는 1년의 기간이다. 정교회는 역법과 시간을 산정하는 나라의 방법이 있다. 이것에 따라 전례력을 구성하고 신자들을 인도한다. 정교회의 교회력은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8월 31일에 끝난다. 이 교회력의 의미는 365일을 한 주기로 삼고 '하느님의 시간'의 신비에 대해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있다. 하느님의 시간이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회상하도록 인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의 사건들은(탄생, 주의 현현, 부활절과 오순절)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수난과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일상의 생활을 묵묵하게 지켜 나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성과 인내력으로 일관된 시간표가 우리를 강하게 도와준다. 현대의 일상적인 삶의 입장에서 보면 느슨하고 단순한 시간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그분의 에너지가 있다. 편리한 기구들의 발달은 시간의 여유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에 쫓기며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굶어 본 사람만이 굶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과 같이 농촌의 시간과 삶은 느슨하고 단순하지만 생명력이 있다.

나는 지금 숲의 한가운데에 있다. 앙상한 나무, 떨어져 밀거름이 되는 낙엽, 차가운 눈이 녹아 생명의 젖줄이 되고, 눈부신 햇살은 성장의 생명력이 된다. 이 추운 시기가 지나면 잎이 돋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시간의 흐름과 삶이 보이지 않게 생명력을 키우듯, 그리스도의 시간인 전례의 삶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생명을 키워준다. 이제 하루를 보내며 저녁의 시간이 지나 밤 기도를 한다.

2. 몸 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만물과 역사는 성

장해 나간다. 하느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1년을 살아간다.

신앙의 계절은 그리스도의 탄생, 세례, 현현, 수난, 부활, 승천, 강림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매년 반복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적 생애를 반복하다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주관적이고 취향에 맞는 것만 찾는 편중성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례반복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인도해 준다. 개개인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건강해지며 성숙될 수 있다. 교회력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취향과 인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목사는 설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해의 전례를 지키려면 한 주간의 전례가 필요하고 한 주간의 전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주간전례

일요일은 주간의 첫 날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는 '작은 부활절'이다. 그러므로 매 주간은 부활절로 시작한다. 부활절이 한해의 중심인 것처럼 일요일은 그 주간의 중심이다. 이 날은 승리의 날이기에 경배하면서 매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며, 한 주간 내내 부활의 빛 가운데서 활동하도록 해준다.

2) 매일예배

매일 기도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낮과 밤, 사계절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매주가 특정한 성격으로 나뉘어져 구분되어 순환되듯이 하루의 시간도 그러하다.

신약은 아침해가 뜨는 6시를 그 날의 제 1시로 삼았다. 초대 크

리스찬들은 주야로 매 3시간마다 기도를 위하여 활동을 중단하였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 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으며(행3:1), 베드로는 제 6시에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하였다(행10:9). 오늘날에는 이러한 시간 순서를 수도원에서 행하고 있다.

2002년도 5월, 감리교 농촌선교목회자(이하 농목)모임에서는 미국 뉴욕 근처에 있는 뉴 스킷페라는 미국 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2박 3일간 머무르는 동안 매일 오전 7시, 오후 5시, 두 차례의 기도회를 가졌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힘이 있었고 인상적이었다. 미국 가기 전에도 농목의 회원들은 정교회를 공부한 감리교 박효섭 목사와 함께 몇 차례 피정을 한 경험이 있다. 이 때에도 매일 시간을 4-5회 정도 나누어서 기도를 했다. 이때에도 역시 힘은 들었지만 새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 이것을 성탄 전야, 현현절 전야, 성 금요일 등에 교우들과 함께 지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기도회는 찬양과 함께 절기에 맞는 시편과 말씀 그리고 침묵의 기도순으로 하면 된다. 이러한 시간으로 교회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콘스탄틴 이전 시기에 교회력은 부활절, 오순절, 현현절 3대 절기로 구분되었으며, 그 후 절기는 점점 더 세분화되었다. 8세기에 와서 부활의 준비기간으로 사순절이 생겨났다. 서방교회에서는 6주간을 행하고 있지만 정교회는 사순절 끝의 한 주간과 앞의 3주간을 준비기간으로 추가하여 하여 10주간을 행한다. 동방 전례에서는 준비의 기간이 서방과 개신교보다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정교회는 앞뒤의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렇게 사순절이 생기고 현현절에 앞서서 크리스마스가 생겨났으며, 탄생 전에 대림, 혹은 대강절이 생겼다. 오순절에서는 부활 후 40일째의 목요일까지를 승천절로 구분했으며 1343년에 삼위일체절을 공식화했다.

3) 서방교회의 교회력

① **강림절** :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며 대림절이라고도 일컫는다. 이 시기는 메시아의 기다림을 고대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정신이 지배적이다. 이사야가 외치는 산들은 깎아지고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새 종말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면을 내포한다. 대림절의 두 주간은 세례자 요한을, 마지막 두 주간은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기념한다. 이 기간은 구약의 시간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준비 후 성탄절을 맞이한다.

② **현현절 혹은 주현절** : 1월 첫째 주는 가정 주일로 지키며 둘째 주일인 1월 6일부터 주현절로 지킨다.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나타나신 하느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축하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으며, 동방교회에서는 예수의 세례를 축하하는 것으로만 남아있다. 주현절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날이며 이를 통해 물의 본질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다. 서방교회에서는 다섯 번째 주에 다불산의 변화를 기념하며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③ **사순절** : '성대한 50일'은 준비하는 절기가 필요했는데 이 절기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심사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부활절 전의 일곱 번째 주간의 수요일(성회 수요일 혹은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기도, 회개, 절제, 훈련하는 기간이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는 사순절이 사십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십 일을 보낸 것에 연유한다. 마지막 주간에는 요일별로 예식을 행하였고 동방에서는 성금요일에 십자가 고난 전례를 행하였다. 이에 비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예식은 너무도 형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부활절** : 예수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큰 의미가 있다. 유월절이 노예상태에서 해방된 사건인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절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마치 한 주간이 주의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듯이 한 해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의 빠스카(부활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부활의 기간인 7주간 쟈가 승천절이며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며 삼위일체주일이다. 바로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묵상과 관상으로 준비하고 이후에는, 즉 성령 강림 주부터 대림절까지의 기간은 활동하는 시기로 구분한다. 묵상과 관상의 계절이 지나 내적인 힘이 분출되어서 교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지는 구분이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4) 동방 교회의 전례

정교회의 교회력은 9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8월 31일로 끝난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일정한 순서대로 재현시키는 것이 전례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례력은 우리의 기도가 생생한 현실성을 갖게 하고, 생활이 복음적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정교회 전례력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회상하도록 초대한다. 수태고지와 크리스마스로부터 주의 공현과 부활절에로, 부활절에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축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수난과 죽음에 우리 자신을 결합하도록 자극 받으며, 승리의 그리스도와 결합하게 된다. 한해 동안의 축제들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체험토록 해준다. 서방과는 다르게 모든 시간의 사건들을 축제로 이끌며 우리의 영혼이 그 사건들 속에서 동화되어 하나가 되기까지,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며, 성령

안에서의 기도 생활이 지속되도록 도와준다.

① 크리스마스 전 시기 : 동방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시기를 대림절이라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 40일간을 말한다. 11월 15일에 정교회는 '크리스마스 단식제'를 시작한다. 이 시기는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기인 것과 같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이다. 서방 교회력 보다 앞과 뒤로 훨씬 많은 날을 준비한다.

대림절의 중심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 오심은 상징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현존하심을 말한다. 이 시기 동안 신자들의 기도는 '오소서'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림절의 화환을 집집마다 만들어서 준비하게 한다. 강림절의 기간동안은 거의 농한기여서 매일 밤 교회에 부모와 아이들이 모여 성탄을 기다리는 기도와 예식을 행할 수도 있다. 초 한 자루씩을 가져와 켜서 강단에 장식을 하며 성탄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다.

'오소서' 하면서 주님의 기다림을 부르는 일은 아이들에게 큰 기억으로 남는다. 대림초 4개에 불을 켜면서 기다림을 준비한다. 보라, 연보라, 분홍, 성탄절의 흰색을 차례로 준비하여 각 가정에서 행한다.

② 성탄절 : 그리스도 탄생 경축이 교회 전례력에 소개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었다. 첫 세기 동안 교회는 주님의 탄생보다도, 그분의 현시인 공현 (그리스도의 세례일)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③ 주의 공현 대축일 : 1월 6일이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하였다. 4세기경에 공현은 성탄 축제와 구별되었다. 성탄절에 본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별빛이라면, 공현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빛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다가온다.

④ 사순대제 :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는 정교 전례력의 최고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다. 경건함과 새생명여로의 부활, 잉태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24절기에서는 춘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이기도하다. 사순절 절기는 금식과 회개의 자기 성찰 기간이다.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함으로써 부활축제를 경축한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기간으로 유혹과 싸우는 시기이다. 성회 수요일 전례 때에는 1년 동안 피웠던 향의 재를 모아다가 이마에 뿌려줌으로 회개를 인도한다.

⑤ 부활절 : 오랜 준비 끝에 교회의 가장 큰 사건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나셨기에 가장 큰 축일이다. 그러기에 40일 동안 지낸다. 우리의 명절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축제는 승천일 전날에 와서야 매듭지어진다. 부활절은 교회력의 중심이요 심장이다. 전체적인 전례의 주기가 이 부활 주일에 달려 있다. 이 날이 다른 이동 축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력은 오늘날에 7대 절기, 즉 대림절기(대강절: 주님의 탄생, 재림을 기다림, 성탄일 이전 4주간), 성탄절기(주님의 탄생: 성탄일과 새해 1월 6일 사이), 주현절기(주님 세례 받으심: 1월 6일부터 사순절 이전까지), 사순절기(부활절 준비,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 7주간), 부활절기(주님 부활: 우리시기로는 춘분 후 첫 보름 뒤의 첫 주일로부터 이후 7주간),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성령강림, 부활절 후 일곱째 주일부터 11-16주간), 신정절기(왕국절, 창조절)로 구분 할 수 있다.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루의 예배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까지도 중요하게 여겼다. 정교회는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일로 구분해 놓았다. 절기예배 전의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말씀

을 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다. 이것은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 하느님이
쉽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3. 나가는 말

전례의 예배는 평생을 두고 일구어 나가는 '신앙농사'로 비유 할 수 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24절기의 시기를 잘 따라야하는 것처럼 신앙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때와 의미를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력을 잘 따라서 해야 한다.

우리교회 집사님과 교회 농사를 지을 때면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볼 때가 많다.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만큼의 손해뿐 아니라 중심이 흩어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기의 첫 주간만 예배의 의미를 두어 한 주간만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을 지냈다면 그 다음의 부활 두 번째 주일의 연계성을 잘 준비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교회력을 회복하려면 교회력 각 절기의 '첫 주일 중심 습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주관적으로 자기 취향에 맡겨짐 인도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방과 동방의 교회력을 우리의 전통장단 판소리의 호흡 원리인 기, 경, 결, 해에 응용해 잘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기경결해란 '내고 (치고) - 달고 - 맺고 - 풀고'라는 한국 전통 장단에서 나온 말이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사일의 호흡뿐 아니라 모임의 준비, 집회, 뒷풀이, 결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경결해 원리에 의한 전통 장단법에 따르면 첫 박은 항상 강박으로 시작하는데, 절기도 이렇게 첫 주일을 지내고 나머지 주일들은 '경' (점점 더 달아 올리고), '결' (강하게 열매를 맺으며), '해' (삭혀주고 풀어준다) 의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교회력은 기(대림절과 성탄절의 시기로 겨울을) - 경

(주현절과 사순절의 시기로 봄을) - 결(부활절의 시기로 한 여름의 자람으로) -해(오순절 혹은 성령강림절의 시기로 풍성한 열매 맺는 시기의 가을로)로 다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례의 시간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력이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접할 기회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과거 역사의 시간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현재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력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발에는 밭 새순이 어느새 때를 맞이하여 파랗게 줄이어 돌아 올랐다. 뭐 그리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는데도 말이다. 어디 그것이 인간의 땀흘림으로 자랐을 것인가! 그분의 은총과 깨닫지 못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겠는지요? 철없이 살아감을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피조물을 보며 당신의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참고도서

-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남호 지음. 감리교 홍보출판국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절기예배 이야기』 이정훈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 이성재 지음. 서울미디어
『말씀과 전례』 S.치프리아니/ 오영민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전례와 표징』 P.폴 카스파 / 허인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정교회 전례력』 그리스정교 사도 봉사회/ 박효섭 옮김. 야소암
『동방정교 전통과 영성』 칼리스트스웨어 외/ 박효섭 옮김. 야소암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롤랑 드보/ 이양구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교회력』 Edward T. Horn/ 배한국 옮김. 컨콜디아사
『2003년 예배와 설교』 정장복 지음. 흥성사
『2003년 온 땅의 새바람으로』 박근원 지음. 대한기독교서회
『2003년 예배와 강단』 김종렬 엮음. 한들출판사